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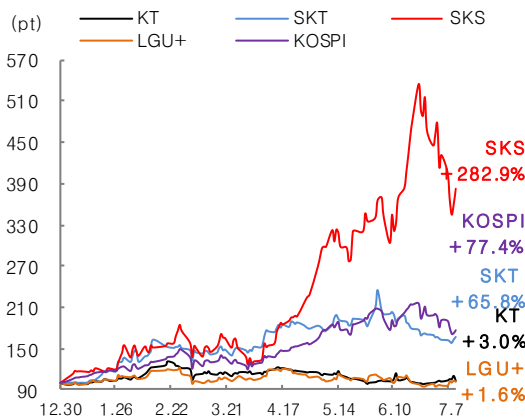
1. 주가 현황

| 기업 | 25/12/30 | 07/03 | 07/10 | 연간 상승 | 수익률 | 주간 상승 | 수익률 | 12MF DPS | 배당수익률 | 주간 그래프 |
|----------------|----------|-----------|-----------|-------------|----------|-----------|---------|----------|-------|--------|
| SKT (017670) | 53,500 | 86,400 | 88,700 | ▲ 35,200 | ▲ 65.8% | ▲ 2,300 | ▲ 2.7% | 3,320 | 3.7 | |
| SK스퀘어 (402340) | 368,000 | 1,589,000 | 1,409,000 | ▲ 1,041,000 | ▲ 282.9% | ▼ 180,000 | ▼ 11.3% | | | |
| KT (030200) | 52,600 | 53,700 | 54,200 | ▲ 1,600 | ▲ 3.0% | ▲ 500 | ▲ 0.9% | 2,500 | 4.6 | |
| LGU+ (032640) | 14,720 | 14,200 | 14,960 | ▲ 240 | ▲ 1.6% | ▲ 760 | ▲ 5.4% | 700 | 4.7 | |
| KOSPI | 4,214.2 | 8,088.3 | 7,475.9 | ▲ 3,261.8 | ▲ 77.4% | ▼ 612.4 | ▼ 7.6% | | | |

- 주가 코멘트: 2Q 이익 전망 좋습니다. 방어 역할에 성장까지 겸비
- 통신 주간 +2.5%, KOSPI -7.6%. YTD 통신 +25.4%, 지수 +77.4%. 주간 지수 하락 과정에서 통신은 실적 안정성과 밸류에이션 및 주주환원 매력에 부각되면서 상승. 주간 핫 이슈는 DC. 지난 주 SKT의 중기 5GW, 장기 15GW 구축 계획에 이어 KT도 중기 1GW 구축 계획 발표
- KT의 DC 계획에는 "실수요에 기반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 통신사와 SI 사업자들의 DC 구축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실상 확보된 고객의 수요를 기반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추정. DC 관련해서는 3사 모두 연내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
- 3사 이익 전망은 양호. 합산 OP 1.4조원(-14% yoy) 전망. SKT 5.5천억원(+62% yoy), KT 5.5천억원(-46% yoy), LGU+ 3.3천억원(+8% yoy) 전망. 26E OP 5.4조원(+23% yoy)으로 20년 만에 5조원대 이익 복귀 전망
- 통신은 해킹 관련한 이슈는 마무리되고 이익에도 대부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선될 실적과 주주환원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이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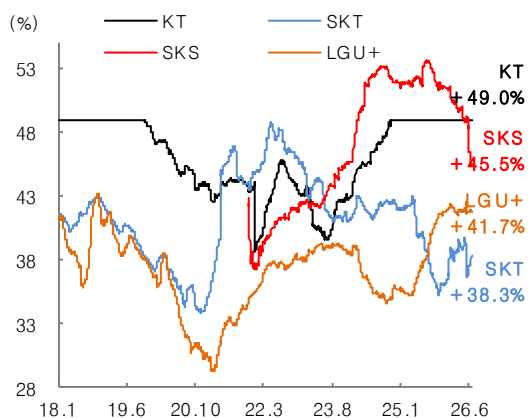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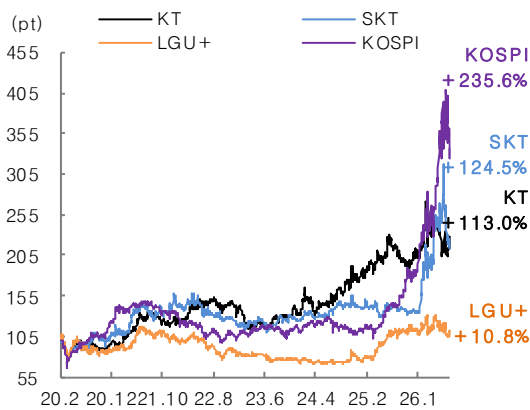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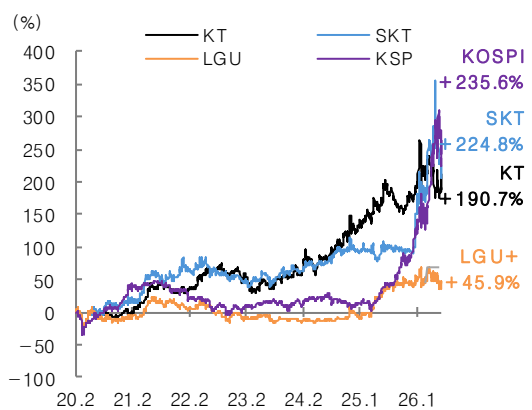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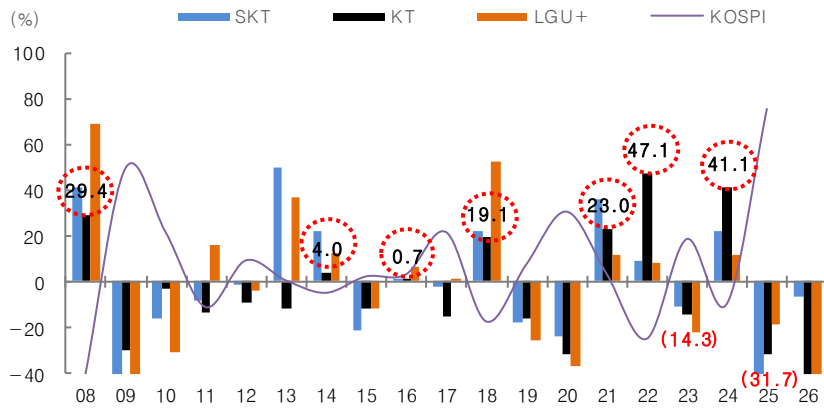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65.8%(-6.5%), KT +3.0%(-41.9%), LGU+ +1.6%(-42.7%)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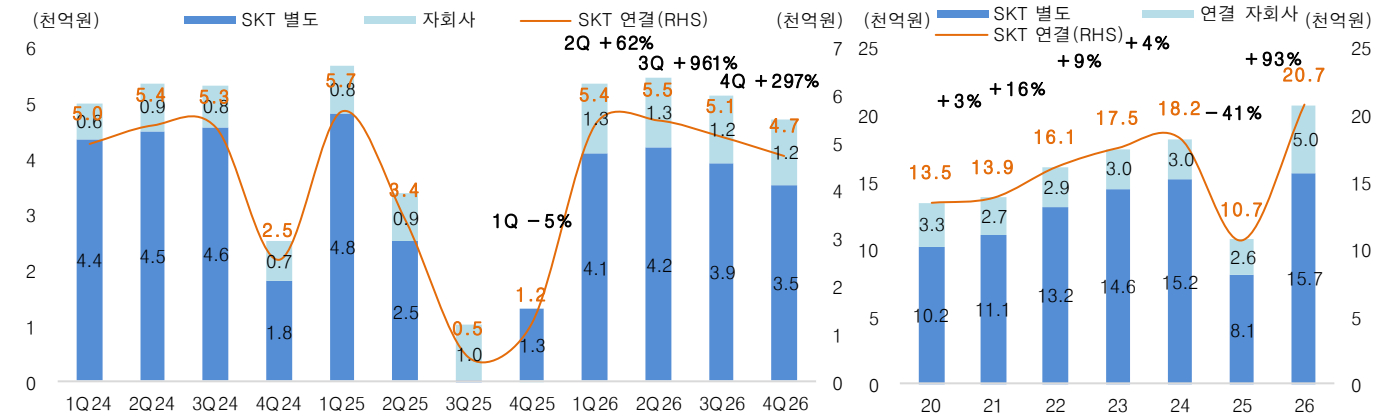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 | SKT | KT | LGU+ | KOSPI | 상대 수익률 | 상대 수익률 | 상대 수익률 |
|----|--------|--------|--------|--------|--------|--------|--------|
| 19 | (11.7) | (9.4) | (19.5) | 7.7 | (18.0) | (15.9) | (25.3) |
| 20 | 0.0 | (11.1) | (17.3) | 30.8 | (23.5) | (32.0) | (36.7) |
| 21 | 41.0 | 27.5 | 15.7 | 3.6 | 36.1 | 23.0 | 11.7 |
| 22 | (18.1) | 10.5 | (18.8) | (24.9) | 9.0 | 47.1 | 8.2 |
| 23 | 5.7 | 1.8 | (7.4) | 18.7 | (11.0) | (14.3) | (22.0) |
| 24 | 10.2 | 27.5 | 1.0 | (9.6) | 21.9 | 41.1 | 11.7 |
| 25 | (3.1) | 20.0 | 42.5 | 75.6 | (44.8) | (31.7) | (18.9) |
| 26 | 65.8 | 3.0 | 1.6 | 77.4 | (6.5) | (41.9) | (42.7) |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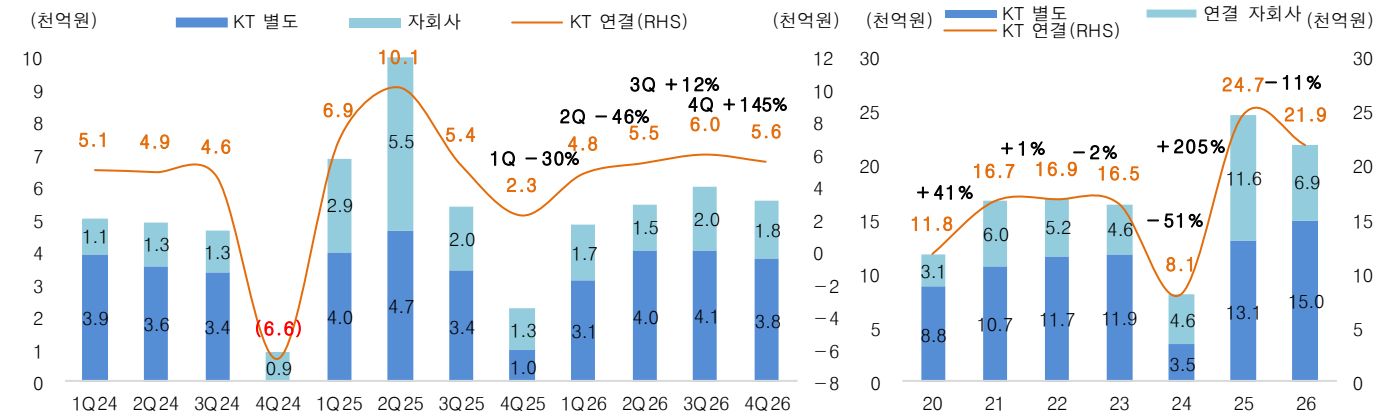
3. 2Q26 Preview

SKT OP 2Q26 5.5천억원(+62% yoy), 26E 2.1조원(+93%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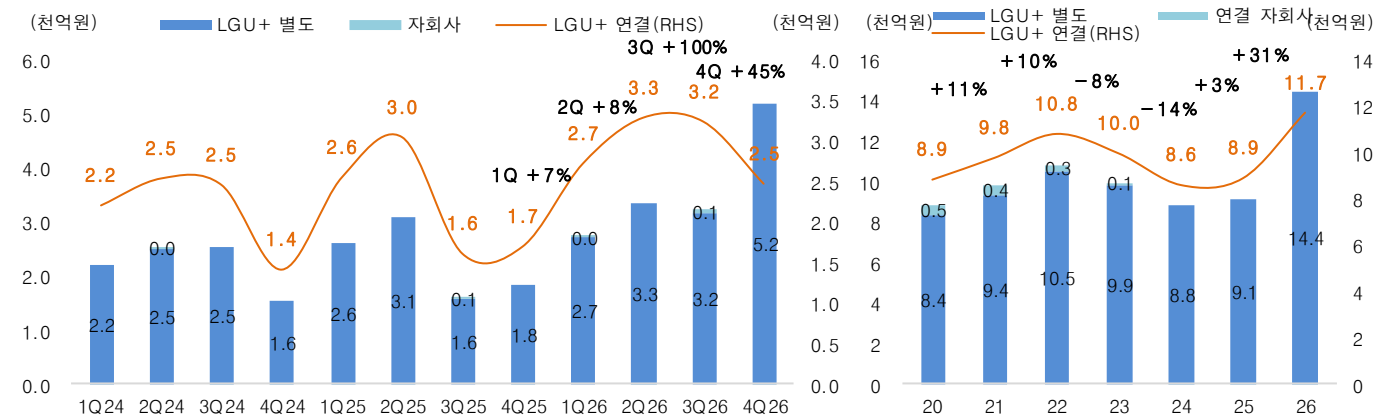
자료: LGU+,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T OP 2Q26 5.5천억원(-46% yoy), 26E 2.2조원(-11%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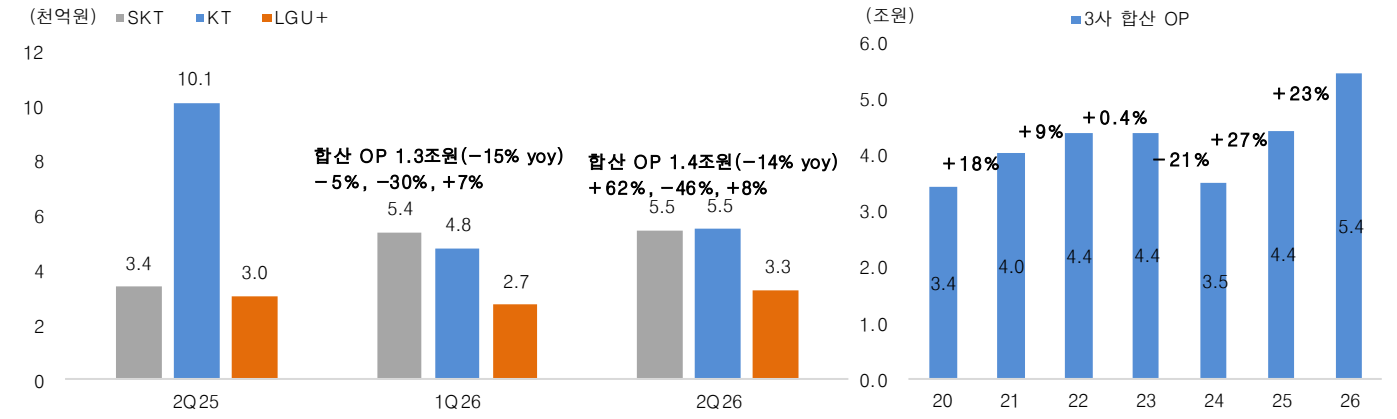
자료: S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GU+ OP 2Q26 3.3천억원(+8% yoy), 26E 1.2조원(+31%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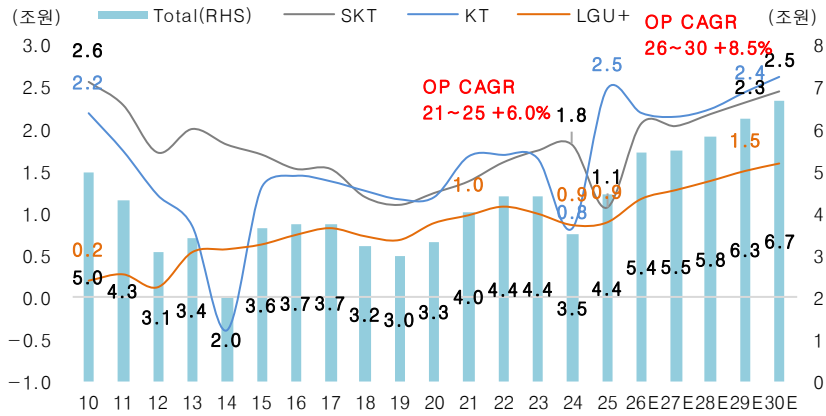
자료: 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사 합산 OP 1Q26 1.3조원(-15% yoy), 2Q6 5.3조원(+19%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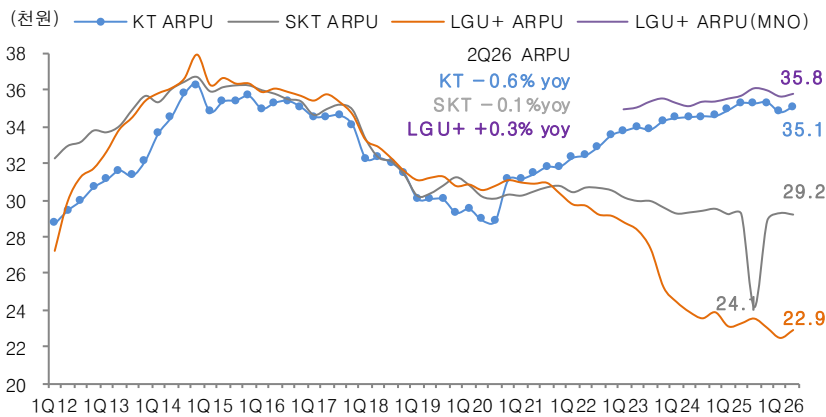
자료: 각 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사 합산 OP 26E 5.4조원, 30E 6.7조원. 연평균 8.5% 증가 전망



자료: 각 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Q26 무선 ARPU. SKT -0.1% yoy, KT -0.6% yoy, LGU+ +0.3% yoy 전망



자료: 각 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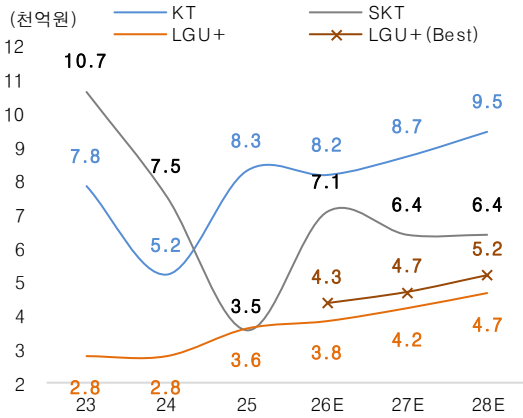
4. 주간 코멘트

다날 알뜰폰 사업, KT 중기 성장 전략, SKT AI 사회적 가치 측정, 안면인증 혼선, KT 여의도 DC 증설

| | |
|---|--|
| <p>산업</p> <p>다날 알뜰폰 사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날이 알뜰폰(MVNO) 시장 진출을 검토하며 자체 사업부 구성에 착수했고, 기존 사업자 인수 대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 아직 내부 검토 단계로 사업화 여부와 추진 시기는 확정 전 2. 다날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KB국민은행 리브엠, 토스모바일, 우리WON모바일에 이어 금융·핀테크 기반 알뜰폰 사업자로 합류하는 구도. 결제 사업과 통신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 락인과 안정적인 월 구독형 매출 확보 전략 3. 결제 수수료 경쟁 심화로 기존 사업 수익성이 낮아진 가운데 통신 가입자 기반 확보를 통한 고객 생애가치(LTV) 확대 기대. 결제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초개인화 마케팅과 대안신용평가 활용 가능성 부각 4. 시장 환경은 금융권 알뜰폰 초기 진출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 이동통신 3사의 저가 5G 요금제 확대, 단말기유류법 폐지, 전파사용료 감면 축소 등으로 MVNO 사업 부담 증가 5. 다날은 본인확인(KYC), 인증, 결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차별화를 추진할 가능성. 기존 결제 가맹점과 연계한 캐시백·포인트 적립 등 결합형 요금제 설계가 경쟁력으로 거론 6. 대형 핀테크 기업의 진입이 알뜰폰 시장 인지도와 규모 확대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능. 반면 단순 가격 경쟁보다 금융·결제 연계 서비스 등 차별화된 혜택이 성공의 핵심 변수 |
| <p>중립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감소하는 영향이 있으나,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인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알뜰폰 시장이 유지되는 것은 긍정적 |
| <p>KT</p> <p>KT 중기 성장 전략</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X Platform Company' 도약 기차관람회 개최. 중기 성장 전략 공개. 핵심 목표는 통신의 본질 경쟁력 강화와 AX 인프라 확대 통한 아시아 AX 허브 구축 2. 통신 본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정보보안, IT 구축에 4조원, N/W 인프라에 8조원, AX 인프라에 향후 5년간 6조원, 총 18조원 투자 계획 3. 정보보안·IT 분야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체계 구축, N/W는 미래기술 확보가 핵심 4. AIDC는 실수요를 기반으로, 5조원을 투입해 총 1GW 용량을 추가 구축. 중앙AIDC와 산업현장 인근 AI Edge를 연결하는 구조로, 피지컬 AI 등 초저지연 실시간 추론 수요 대응 5. 해저케이블은 1조원 투입, 90Tbps 공급 용량 확보 계획. 글로벌 AI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6. 신성장 AX 사업으로는 토크팩토리과 스테이블코인 제시. 토크팩토리는 KT의 AIDC, 토크 최적화 엔진, 과금/정산 역량을 결합하여 육성 7. 스테이블코인은 케이뱅크, BC카드 고객 약 2,000만명과, KT의 N/W·보안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으로 추진 |
| <p>긍정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는 유무선 N/W에 강점이 있고 DC 사업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규모로 영위 중 ■ 통신사를 포함 많은 사업자들이 중장기 DC 확장 계획 발표. 이번 KT의 발표는 "실수요"를 기반으로 구축 계획을 밝혔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 부여 |
| <p>SKT</p> <p>SKT AI 사회적 가치 측정</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K텔레콤이 일본 소프트뱅크와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함께 AI·ICT 기술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공동 방법론 개발 추진. 글로벌 활용 가능한 표준 측정 체계 구축 목표 2. 3사는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ICT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모델 공동 개발 착수.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계획 3. 협력은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개발뿐 아니라 사례 연구, 공동 보고서 발간, 포럼 개최 등으로 확대.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활용 가능한 표준 모델 구축 4. AI 확산으로 생산성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포용, 고객 편의 확대 등 사회적 효과 증가.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성 확대 5. 3사는 24년 첫 협약 이후 사회적 가치 측정 워크숍과 사례 발표를 진행하고, 소프트뱅크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공시해 SK텔레콤 지표와 비교·분석 6. 이번 협약은 2년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측정 모델을 고도화하고 AI 시대 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단계 |
| <p>긍정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안과 윤리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 등장 ■ AI를 활용한 BM 개발도 중요하지만, AI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판단 |
| <p>산업</p> <p>안면인증 혼선</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안면인증 기반 다중 본인확인 제도 시행, 유통 현장 초기 운영 중. 판매점과 소비자 모두 이용 편의성 부족 지적 2. 판매 현장에서는 안면인증 이용률 저조 양상 확인. 한 판매점은 개통 고객 31명 가운데 안면인증 이용자가 1명에 그쳤으며 얼굴 인식 과정의 반복 절차와 소요 시간 부담으로 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 인증 선택 증가 3. 안면인증 인프라 부족도 운영 과제로 부각. 취재 대상 판매점 다수는 전용 인증 단말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분실이나 고장 상황에서는 매장 내 안면인증 진행 제약 4. 일부 소비자는 인증 과정의 불편을 이유로 대체 인증 수단 선택. 제도 시행 직전에는 안면인증 적용을 피하려는 개통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현장 반응도 제시 5. 정부는 하반기 동안 다중인증 체계를 보완할 계획. 금융권 사례를 참고한 대체 인증수단 확대와 주민등록초본 자동 진위 확인 시스템 연계 등 이용 편의성 개선 추진 6. 유통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전 실무 의견 수렴 부족 지적 제기. 보안 강화 취지와 별개로 실제 개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과 운영 효율 개선 필요성 |
| <p>중립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면인증이 실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스가 정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 제시도 중요 |
| <p>KT</p> <p>KT 여의도 DC 증설</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T클라우드가 금융 특화 데이터센터인 여의도 데이터센터 증설 공사 착수와 차세대 금융 인프라 확대 계획 발표. 2027년 6월 준공, 2개 층 규모 추가 수용 능력 확보 추진 2. 증설은 복수 거래시장 확대와 디지털 금융 거래 증가, 글로벌 투자 확대에 따른 인프라 수요 대응 목적. 여의도 데이터센터를 금융기관·한국거래소·글로벌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 계획 3. 여의도 데이터센터는 한국거래소와 주요 금융기관 인접 입지를 기반으로 초저지연(Ultra-Low Latency) 거래 환경 제공 강점 보유. 실시간 거래와 시장 데이터 처리, 리스크 관리 등 금융 핵심 업무 지원 역할 강화 4. 금융시장에서는 다수 거래시장 동시 연결과 대규모 데이터 실시간 처리 요구 확대. 글로벌 투자자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연결성과 고성능 금융 인프라 중요성 지속 확대 5. KT클라우드에는 증설을 통해 금융권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연계 역량 강화 추진. 금융기관의 고성능 IT 인프라 수요를 지원하는 금융 데이터센터 경쟁력 제고 목표 |
| <p>긍정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 여의도 DC는 금융기관이 집중되어있는 여의도의 유일한 DC로서의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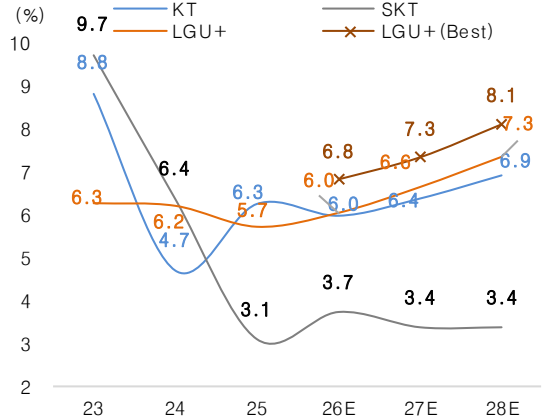
5.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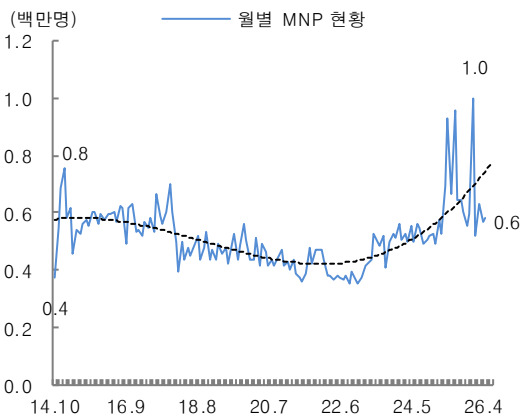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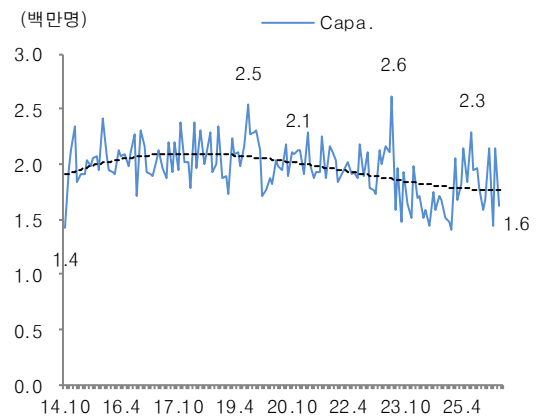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6월) 64만명, +6만명 mom. 25년 월평균 66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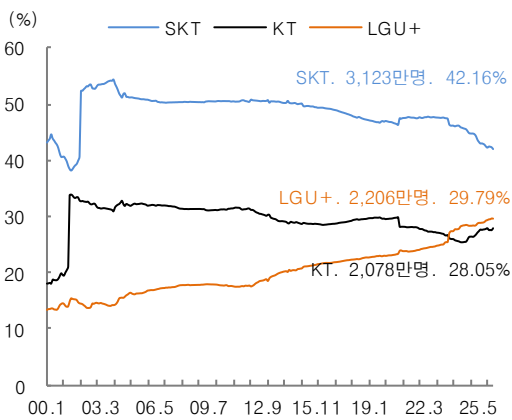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62만명(26.4월). 24~25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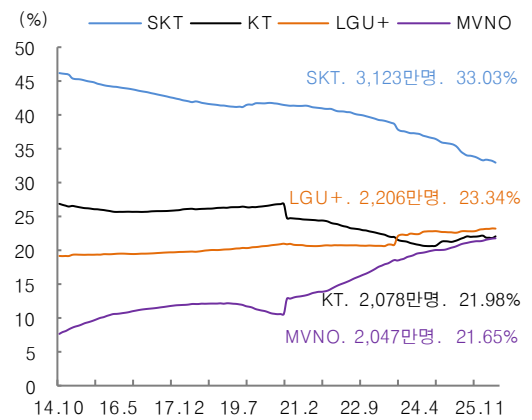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4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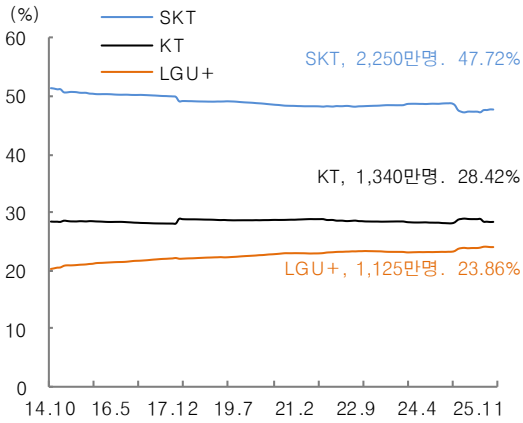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4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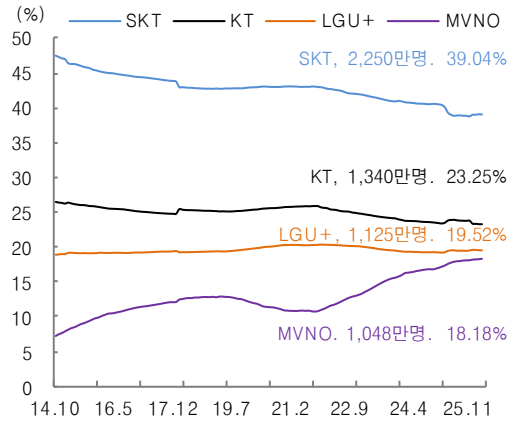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4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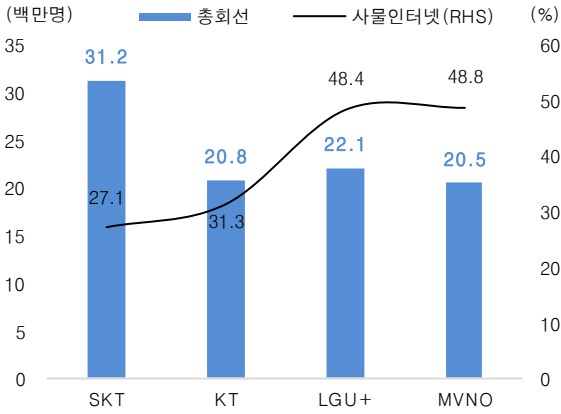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4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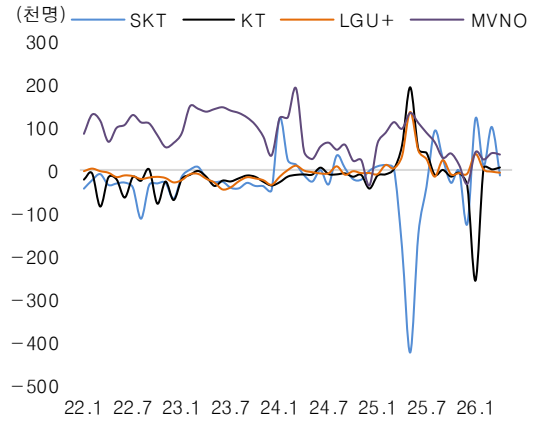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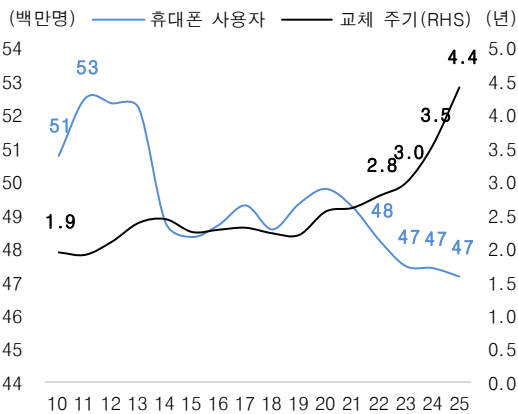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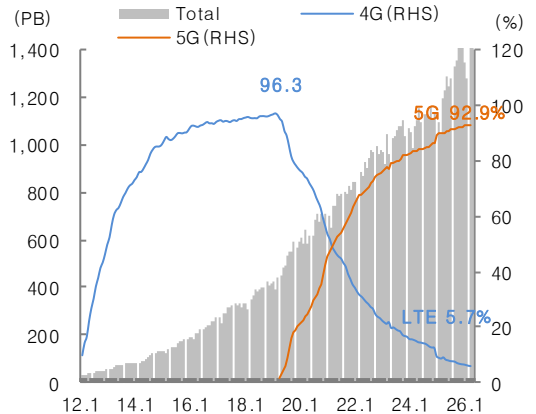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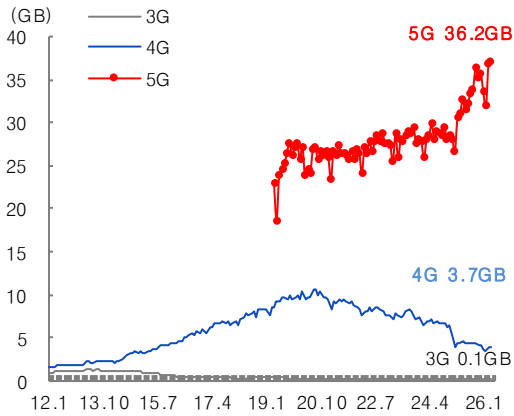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9%(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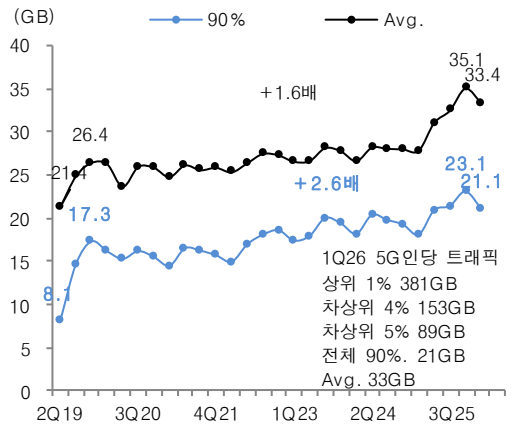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6.2GB(26.4월), +0.2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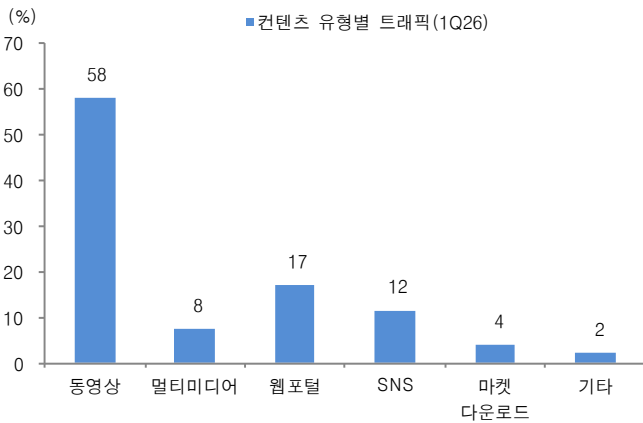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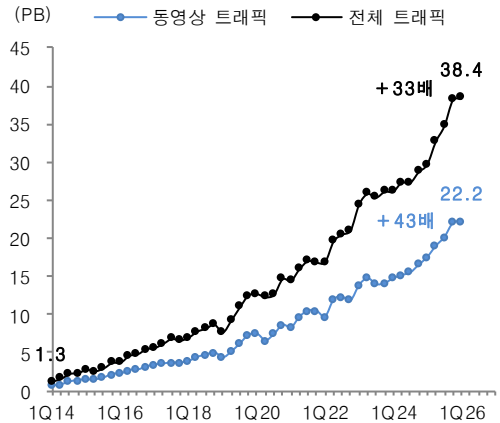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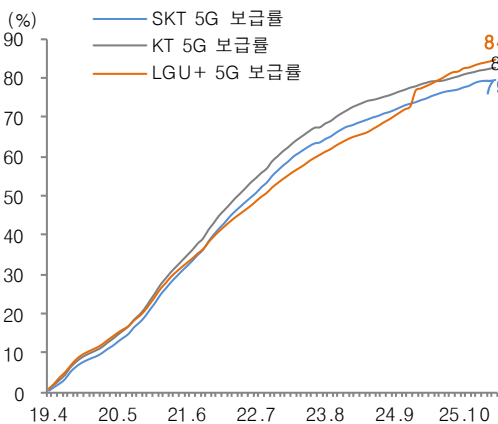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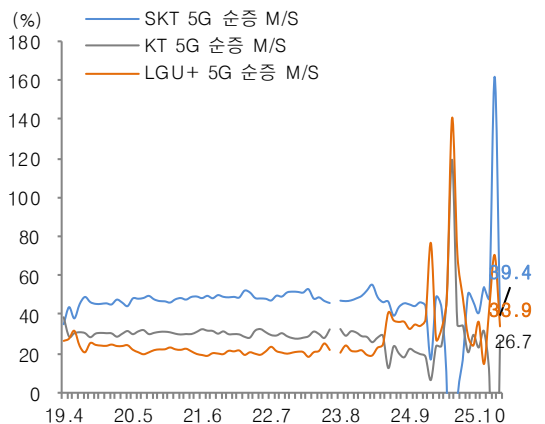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1.6%(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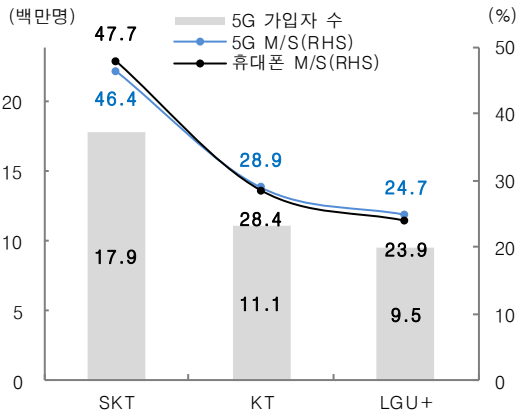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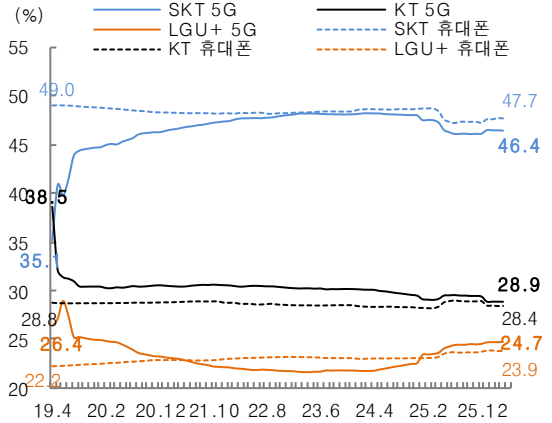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4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4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